

문화재 보존원칙으로 본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 해석

강재웅* · 소현수**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Interpretation of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in Changgyeonggung Palace through the Preservation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Kang, Jae-Ung* · So, Hyun-Su**

*Master's Course, Graduate School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Professo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interpreted the logical validity of the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patterns of Changgyeonggung Palace, where modern landscapes coexi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in the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attitude concerning the Changgyeonggung management organization were identifi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ffice of the Imperial Garden, an imperial property was nationalized. The Cultural Heritage Managing Department was opened in 1961, and Changgyeonggung Palace were preserved as designated as historical sites in 1963. An environmental purification was implemented by the Changgyeonggung Office as a follow-up measure for restoration in 1983. A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moted in 1999 and the Royal Palaces and Tombs Center was established in 2019, the palace has been managed professionally as a palace landscape to provide a viewing environment.

Second, In the 'Purification Period of Changgyeongwon(1954~1977)', environmental purification was carried out to restore amusement facilities, install facilities for cherry blossom viewing, and develop the place into a national zoo. In the 'Reconstruction Period of Changgyeonggung(1983~1986)', restoring function as an urban park, reserving green areas, the outside space was recreated in the traditional feel, and the forest area was generally maintained. In the 'Supplementation Period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pace(1987~2009)', a uniform green landscape was created with pine trees and various vegetation landscapes centered on the flower beds. In the 'Improvement and Maintenance Period of Viewing Environment(2010~2022)', a master plan was re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utilization, but maintenance has been carried out in a small scale centering on unit space.

Third, regarding the validity of the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It was found in terms of 'originality' that the recovery of the palace system has not been expanded for over 40 years in existing are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which shows whether multi-layered history was taken into account, Changgyeongwon was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base year twice. In terms of 'integrity,' the area of the Grand Greenhouse where the historic states coexists needs a maintenance policy that binds the greenhouse, carpet flower bed, and Chundangji Pond. The 'utility' identified as the utilization of spaces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sense of place in the Grand Greenhouse area, which is concentrated with programs different from other areas.

Key words: Chundangji Pond, Grand Greenhouse, Historic Site, Historic State, Purification Project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02504, South Korea. Tel.: +82-2-6490-2848, E-mail : hssso@uos.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구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 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운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운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주제어: 대운실, 사적, 원상, 정화사업, 춘당지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8년 문화재청은 ‘고궁 역사문화명소화 계획’을 시작으로 이듬해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야간개방 행사를 시행하는 등 고궁을 예술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대표적 사례로서 2014년 한국문화재단 설립 이후 매년 조선의 궁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궁중문화축전’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인의 교육과 여가를 위한 물리적 토대로서 쉼내 외부공간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과 덕수궁은 “옛 모습으로의 복원을 우선시하는 계획보다는 현재의 이용상 특성을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1], 이벤트성 전시와 야간 상시개방 등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덕수궁이 대한제국이라는 명료한 근대성을 지닌 반면에 일제강점기에 변화를 겪은 창경궁은 조선의 궁궐 중에서 상대적으로 장소성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창경궁은 태종이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지은 수강궁(壽康宮)을 성종 15년(1484) 세 대비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고쳐 지은 이래 왕실의 오랜 생활공간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1907년 이후 순종의 창덕궁 이어(移御)를 핑계로 일제에 의하여 창경원으로 격하되어 일반에 개방되었다. 해방 이후로도 궁궐 내

보존 대상은 전각 단위로 인식됨에 따라서 창경원 유원지 시설과 고건물이 병존하는 양상이 지속되었다. 1983년에 이르러서야 ‘창경궁 중건공사’의 일환으로 일제의 흔적을 제거한다는 대전제 아래 대다수의 유원지 시설이 철거되었고, 공터가 된 철거지는 녹지 ‘처리’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창경원의 경관은 서울의 유원지로서 1980년대까지 존속되었고, 당시 예외적으로 존치된 춘당지와 대운실은 현재 고궁 내 이색적인 경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경궁 복원정비의 기준이 되는 원형과 관련하여 내·외전 권역과 후원 권역을 중심으로 건축학과 조경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있었다. 전자에서는 주로 전각의 구조와 세부 의장이 연구되었으며, 외부공간의 구성 및 동선체계까지 확장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3]. 조경학은 내전의 화계와 후원 관덕정 일원의 식생경관 연구에 집중되었다[4][5]. 특히 후원의 춘당대, 관풍각, 관덕정 각 영역 간의 유기적 관계성이 연구되었다[6]. 이들 연구는 복원기준 시점을 『동궐도』를 근거로 하여 조선후기 순조 연간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복원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는 창경원과 관련해서는 식민성이나 근대공원의 효시로서 행락 문화를 다룬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7][8][9].

이처럼 창경궁의 조경을 주제로 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과 일제강점기로 분리되지만, 복원의 기준이 되는 시점과 경관을 논의하는 데 있어 창경원에 대한 인식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창경궁은 권역마다 주요 경관의 시간성이 상이하므로 『동궐도』 기준으로 단일화된 복원 시점을 적용하는 창덕궁과 달리 통시성을 포괄할 수 있는 외부공간 복원정비

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수행된 창경궁의 조경 복원정비 양상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문화재 보존의 원칙을 준용하여 내재된 논리를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행락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창경궁이 전각 일부나마 정비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해방 이후부터 2022년 현재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1 일원이다. 복원정비 양상 분석을 위하여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2010)』에서 창경궁 궁제(宮制)에 따라서 외전, 내전, 궐내각사, 동궁, 후원으로 구분한 다섯 개의 권역을 적용하였다(그림 1).

조선 초부터 이어져 온 창경궁의 경관은 중건과 소실을 반복하며 변해 왔으나, 가치 및 기능을 회복시키는 행위로서 ‘정비’는 기능의 저하나 물리적인 멸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궁궐에서 유원지로 전락하게 되면서 ‘본래의 가치와 기능’이 가장 크게 훼손된 일제강점기 전후를 기점으로¹⁾ 관리주체인 창경궁 전담 관리조직의 정비대상에 대한 인식과 목적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는 직제별 사무분장과 세부 업무 규정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는 창경궁 전담 관리조직 직제별 사무분장의 변화에서 파악되는 정비 목적에 따라 차별성이 있는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의 네 시기를 구분하고, 이들을 보존조치 결과물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나아가, 내재된 논리의 가치판단을 위하여 모든 보존조치의 전제이자 지향점에 위치한 문화재 보존원칙의 관점에서 기시행된 사업들의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시기별 조경 복원정비사업의 1972년부터 2003년도까지의 공사 내용은 국가기록원을 통하여 보고서, 공사설명서, 설계도서의 기록물 사본을 획득하였고, 2003년 이후 현재까지의 내용은 조달정보개방포털의 입찰공고와 계약 내역 상 검색되는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였다. 이때 단청이나 보수 등 건축물에 관한 개별 정비나 경비시스템의 유지보수공사 등 주기성을 갖는 공사 내용은 배제하였다. 또한, 1984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종합기본계획과 문화재 심의위원회 및 복원공사 당시 실무진의 회의록을 분석함으로써 철거와 복원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논리를 파악하였다. 또한, 당시 여론과 이용행태는 사진과 신문 기사를 통하여 내용을 보강하였다. 창경궁의 조경 복원정비 양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연구의 분석 자료

구분	자료 유형	자료의 명칭과 출처
관련 심의 회의록	『문화재위원회(1분과)』	창경원 정비계획 안전 부의 창경원 복원정화계획보고
	『창경원 정화 관계』	창경원 정비 복원 현장보고
	『창경궁 복원정비』	창경궁 복원정비계획 안전 부의
	『창경궁 주변 민가 정비 및 복원회의록』	제1~3차 창경궁정비공사 추진 대책회의 결과보고
		제4~5차 창경궁 및 종묘 정비공사 추진 대책회의 결과보고
	『창경궁 중창 회의록 및 보고서 발간』	창경궁 중창 설계지침 회의 결과보고
		창경궁 복원정비 공사 추진 월례 대책회의 결과보고
		창경궁 중창공사 설계 심사회의 결과보고
복원 정비 사업	『창덕궁 조정 관계철』	창덕궁 및 창경궁 조정자문 결과보고
		창경궁 정비 계획(조정)(1984)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2010)
	발굴조사보고서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1985)
	중건보고서	창경궁 중건보고서(1989)
	공사설명서 및 설계도서	국가기록원(1972~2003)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조달정보개방포털(2003~2022)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1947~2020)
	사진엽서	교토대학 귀중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사진	일반사진	창덕궁, 창경원 사진첩(1910)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1910~1917)
		국가기록원(1970~1987)
		개인 및 기타 박물관 소장자료
신문기사	(1883~1999)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그림 1.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창경궁의 권역 구분

II. 이론적 고찰

1. 정비대상으로서 문화재 경관

1) 보존의 관점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문화재수리'는 유형문화재에 취하는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그 대상에는 당해 문화재만이 아니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까지도 포함한다[11]. 『문화재보호법』 내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 유지'라고 명시되었으나 관련된 국내 문건에서는 원형에 대한 정의는 물론,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종종 '원상'이라는 단어도 혼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원형'과의 관계성은 설명되지 않았다.

① 원형(原形)

원형은 문화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로서 보존조치에 있어 현대적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강현(2016)은 건축 유적은 외기 환경에 노출되어 한 시기의 모습만을 가지고 남아있는 예시가 드물기에 다른 차원에서의 원형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12]. 그의 논의에 따르면 국내 건축문화재에 있어 원형은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된 경향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 하나의 예술품으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미(美)를 모방, 재현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원형이란 최초나 현재의 모습도 아니며, 미를 갖추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개념이었다. 이는 점차 감상자의 주관을 강조하게 된 서양의 미 이론과 함께 달라졌는데, 예술가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창조자로 이해됨에 따라 원형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창조자 '본래의 의도'에 따른 '완전성(integrity)'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2].

역사적 가치 측면에서 '특정 시기'를 원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원형을 '창건 당시 모습'으로 보고 시원성(始原性)을 강조한 것과 '전성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내 문화재 개념은 일제에 의해 막연한 역사적 산물을 의미하는 '고적(古蹟)'으로서 유입되었는데, 이수정(2016)은 고적이란 보존과 계승의식 없이 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보호하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하였고, 해방 이후로도 이러한 전대의 개념이 비판 없이 지속됨에 따라 문화재는 "역사의 물질적 증거"로서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음을 설명하였다[14].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원형 개념은 국내 유입과정에서 상한 연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었다.

② 원상(原狀)

다수의 지침에서 원형과 혼용되고 있는 '원상' 또한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원형을 이해하는 분류에 속하는데, 이는 '현상(現狀)'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원상은 특정 시기를 의미하지 않고 '보존 대상으로서 인식된 때의 상태'로서 보존이라는 개입 조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 상태를 의미한다[12].

대표적으로 생물과 지질·지형 등 자연유산에 있어서 특정한 시점과 형태적 완결성을 내포하는 '원형 유지'를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에 '원상 회복'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15]. 여기서 원상은 단일 시점을 보존원칙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시원성보다 '개입 이전인 지금'의 문화재 가치를 이루는데 기여한 여러 층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대성'을 더 고려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보존조치로서의 문화재 조경

경관을 정비한다는 접근인 문화재 경관은 사적지를 대상으로 논의됨에 따라 초기 '사적지 경관', '사적지 조경'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정림사지 조경 정비를 연구한 김미진 외(2021)는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기준을 토대로 '지정대상과 범위', '토지이용', '유구정비 수법', '동선·포장', '식생', '구조물', '시설물'이라는 7가지 항목을 도출하여 당해 문화재와 보호구역, 그를 둘러싼 동선·식생·시설물까지로 문화재 경관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 조경'이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경관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16].

김민선 외(2022)는 현대 조경과는 태도와 방법에서 차별화되는 행위로서 문화재 조경공사의 독자성을 만족시키도록 현재 업역 내 설정된 '부지조형 및 대지조형', '식재공사', '식생유지관리공사', '포장공사'에서 나아가, '생태조경공사'와 '시설물공사'까지 공종에 포함하였다[17].

2. 분석의 틀

보존조치로서 복원정비는 원상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유산을 향유하는 공동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창경궁에 대한 보존조치로서 진행된 일련의 복원정비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을 해석하기 위한 지표는 국내 문화재 보존과 관련한 문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향점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본원칙 '원형 유지'는 철학적 사유를 전제하는데, 보존의 '대상', '이유', '방법'과 함께 원형에서 오는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보존원칙의 핵심이다[18].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은 현장, 표준원칙, 그 외 문화재 유형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표 2). 각 문건에서 공통되는 원칙을 다음과 같이 8개 항목으로 정리한 후(표 3), 이를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의 대상 및 내용과 연계시켜 네 가지 준거를 도출하였다(그림 2).

즉,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을 파악하고, 기시행된 행위들이 적정했는가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문화재 보존원칙인 고유성, 시대성, 완전성, 효용성이 어느 수



그림 2. 분석의 틀

표 2. 문화재 보존원칙 관련 주요 문건의 제정 현황

분류	명칭
현장	문화유산현장
표준원칙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행정규칙	문화재청 고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문화재수리(식물) 표준시방서
	국가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문화재청 훈령
	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관리 규정
	벽화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성곽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서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일반지침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업무지침
	국유문화재(국보·보물) 관리단체 관리위탁 지침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천연기념물(식물) 관리지침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청 예규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기능유적 본부훈령	궁·능 건조물 보존·관리규정
	궁·능 조경관리 규정

준까지 반영되었는지를 '타당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유성은 복원정비 계획 및 사업의 결과로서 조성된 경관이 문화재 본래의 구성과 기능 등 원상의 핵심적 가치를 잘 회복하였는지 판단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시대성은 복원의 기준 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경관 변화가 일어난 모든 시점을 존중하여 그들이 가지 있는 한 시제로서 기여하게 만드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판단하였다. 완전성은 문화재 경관을 구성하는 영역마다 한 시제의 시원성을 둔 대표적 경관으로 온전하게 인식되도록 핵심 경관 구성요소가 완전성 있게 회복되었는지 판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용성은 문화재 공간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활용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균형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창경궁 전담조직별 조경 정비 목적의 변화

1) (구)황실재산의 국유화와 환경미화

궁내부(宮內府)는 고종 31년(1894)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의 국정 사무와 왕실 사무가 분리됨에 따라 왕실 사무를 관장

표 3. 국내 지침 및 규정의 문화재 보존원칙과 내용[19]

보존원칙	주요 내용
원형 유지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의 기본원칙 • 원형으로의 회복은 명확한 고증이 필수적임
진정성 및 가치 유지	• '가치'는 보존을 통해 유지되어야 함 • '진정성'이란 보통 "희귀성", "고유성"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의미함
내·외부 환경과의 조화	•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주변 경관과 내부의 구성요소 간 조화로운 관계를 갖춰야 함
원위치 보존	• 문화재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원위치에서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최소개입	• 가치는 훼손 시 되돌릴 수 없음을 유의함 • 자연물의 경우 가급적 자연적 처리 방안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가역성	• 보존처리는 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가역성이 확보되어야 함 • "재처리" 가능 여부와 그로 인한 추가적 손상 등을 고려해야 함
역사적 층위 존중	• "시대기준의 적용"은 문화재 축조에 정당하게 기여한 모든 요소가 존중되어야 함 • 수리에 의해 부가된 흔적보다 그 전이 더 가치를 지니면 이전 시대로 변경 가능함
전통기술과 재료 사용	• 새로운 기술과 재료보다는 기존의 기법·재료 사용, 구조 및 양식의 보존이 권장됨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고종은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궁내부 편제를 꾸준히 확대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일제는 황실 재산을 식민지화를 위한 우선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08년 창경원을 조성하며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짓기 위한 전문 인력이 요구되자 같은 해 8월 13일 궁내부 산하에 '어원사무국(御苑事務局)' 관제가 반포되었다. 1909년 제정된 「어원사무국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이들은 궁궐의 관리보다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서 일반서무와 회계를 수행하는 이사실과 박물관부, 동물원부, 식물원부로 구분되었다. 당시 관찰구역은 '창경궁으로부터 비원까지'였고, 영춘헌에 사무소를 두고서 "소용없는 공정은 물수히 궤철할 계획"을 밝혔다[20]. 부서별 업무는 근대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외부공간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식물원부가 있었으나, 이들의 작업은 궁궐의 장소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이라기 보다는 단순 '정원'으로서 환경미화가 중심이었다.

강제병합 이후 1911년 어원사무국의 업무는 이왕직(李王職)의 장원계(掌苑係)로 이관되었다. 이후 이왕직은 1915년, 1916년, 1920년, 1928년 크게 직제가 바뀌는데, 황실의 경제적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에 주력해오던 일제에 의한 축소 개편이었다³⁾. 이에 따라 창경원의 관리는 서무과와 회계과로 몇 차례 이전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사실이 사라지고, 초창기 연구기관이었던 박물관부는 점차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조직이 되었다.

즉 일제강점기 창경궁은 조선왕가의 '사유재산'이었으나, 근대시설과 부속된 정원을 개방한다는 명목으로 일제 치하의 '국유화'가 단행되어 궤철을 허용하게 되었다.

2) 사적으로서 문화재 보존과 환경정비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청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해체하고 그 체제를 인수하였다. 이에 문화재 관련 사무를 보던 학무국이 미군정청으로 이관되었고, 궁내부를 전신으로 둔 별도 체제였던 이왕직은 '구왕궁사무청(舊王宮事務廳)'으로 개편하여 창경궁 장서각의 관리를 맡았다.

1948년 남한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당시 문화재 행정의 주요한 관심은 이왕직이 관장하던 구황실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다[21]. 이러한 배경에서 1950년 「구왕궁재산처분법」의 제정으로 창경궁은 "중요한 궁전의 건물과 대지"로서 국유재산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되면서 구황실재산의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었고, 이듬해 실질적인 집행기관으로서 신설된 '구황실재산사무총국(舊皇室財産事務總局)'의 하위부서에 '창경원'이 독립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창경궁은 "역사적·고전적 문화재"로서 비로소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22].

1961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은 문교부와 통합되어 '문화재관

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 출범하면서 '창경원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63년 창경궁이 사적(史蹟)으로 지정되고 1964년 종전의 고건물 지역은 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물'까지도 정비대상으로 인식되었다[23]. 이는 문화재 정비에 있어서 고고학적 의미를 지닌 당해 문화재만 우선시하던 태도가 점차 보존의 종합적인 환경정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 부족이 줄곧 문제가 되었고, 이에 창경원은 종묘와의 육교를 보수하고, 야간 개방시간을 연장해 벚꽃놀이를 활성화하는 등 관리당국의 기금 확보를 위한 행사장으로 기능하였다[21].

3) 궁제 복원 후속처리로서 고궁의 환경정화

1983년 9월부터 창경궁 복원정비공사의 일환으로서 궁궐 경관을 저해하는 유원지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12월에는 '창경궁'으로 환원된 명칭에 맞추어 '창경궁사무소'로 변경되었다. 당시 '창경궁 증건공사(1983~1986)'라는 대규모 복원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원(苑)'에서 '궁(宮)'이라는 명칭 변경 외에는 사무분장과 업무의 변화는 없었다[24]. 오히려 동물사와 표본실 철거에 따라 관련 업무가 축소되는데, 이는 1998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또한, 당시 궁내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 관리는 '고궁 환경정화' 활동으로서 임야와 잔디의 조정 관리로만 이해된 경향이 있는데, 창경궁에는 기존 건물 철거지 대부분을 복토한 후 잔디로 포장한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규모에 비하여 많은 관리 인원이 배치되었다[25].

4)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 전통조경관리

1998년 '창경궁관리소'로 직제가 변경되었는데 업무상 달라진 점은 없었다. 다음 해 문화재관리국이 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상위부서인 '궁원관리과' 업무에 "전통조경계획의 수립 및 수목관리"와 더불어 "궁중문화의 발굴·재현 및 관광자원 개발"이 추가되었다[26]. 이 시기 전담조직의 변화로 나타난 문화재 정비의 성격은 조경관리의 전문화와 활용을 전제로 한 관광자원화로 구분할 수 있다.

1999년 6월 훈령으로서 「조경관리규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관상 목적'의 정원수로 설정된 기존 조경관리의 대상이 궁능 내 모든 수목, 지피식물과 조경시설물까지 포함하도록 바뀌었다. 이처럼 창경궁과 관련된 내용은 기존 창경원사무소의 「동식물관리규정」에서 동물원 관련 사항이 사라지고 '정원수관리'와 '온실관리'만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이해된다[27].

2014년에 「조경관리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문화재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정비 사항이 등장한다. 가장 큰 변화는 종전에 조경 관리 대상을 수목, 지피와 같은 식물과 조경시설물로 정한 것에 "괴석, 조경시설물(편의시설 포함), 연지, 관람로"를

추가한 점이다[28]. 이는 문화재 조경의 대상이 식물 위주로 인식되던 것에서 점차 관람환경을 위한 시설 전반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2019년 문화재청 산하에 ‘궁능유적본부’가 만들어지고 하부조직에 창경궁관리소가 편성됨에 따라 궁궐조경 정비의 목적은 “역사성, 경관성 등이 뛰어난 주요 수목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29]. 당시 창경궁관리소의 담당사무는 문화재 공간과 식물원이라는 기존의 구분과 동일하였으나, 관람에 관한 사항이 ‘만족도’, ‘편의시설 운영’, ‘전통문화 행사’로 세분되었다[30].

2. 시기별 조경 복원정비사업의 특성

앞서 살펴 본 직제별 조경 정비 목적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비대상으로서 창경궁에 대한 인식이 재설정된 사건을 통하여 조경 복원정비의 시기를 구분하였다(그림 3).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는 「구황실재산법」이 제정된 1954년부터 문예 중흥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기이자 ‘서울대공원계획안’이 승인되어 과천으로의 동물원 이전이 확정된 1977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동·식물원으로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특성을 지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는 창경궁 중건공사가 시행되었던 3년간의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첫 복원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유원지였던 창경원의 흔적을 지우고 고궁으로서 면모를 회복하기 위한 정비특성을 지닌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관람이 재개되었던 다음 해인 1987년부터 200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는 앞서 계획된 권역별 복원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보완 성격의 후속 조경공사가 다수 시행된 특성을 지닌다.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두 번째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포함하는 시기로 설정하였으며, 미복원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재수립함으로써 관람 기반을 확충하고자 한 정비특성을 지닌다.

1)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

①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1938년 일제하 전시체제에 들어서며 불필요한 유원지였던 창경원의 공간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다⁴⁾. 이후로도 창경원은 경영난을 겪으며 각종 공연과 전람회를 유지하면서 유원지로서 성격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익사업을 벌이게 되었다⁵⁾.

이처럼 해방 직후 창경원은 일제에 대한 반감과는 다른 층위에서 복구가 필요한 시민들의 유원지로 인식되었다. 당시 사회 혼란 속 방치되는 온실과 동물원은 관리당국과 시민 모두에게 “무엇보다도 쓸쓸한 감회”를 주는 대상이었다[33]. 유원지 시설들의 기능 복구가 우선시되는 분위기에서 1954년 민간이 서울시를 설득하여 ‘동·식물원 재건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재계 인사들과 시민들로부터 동식물을 기증받는 방식으로 재건되었다. 한편, “시설이 수리되는대로 창경원은 점차 옛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당시 창경원장의 인터뷰를 통하여 창경궁 정비의 목표가 고궁의 복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34].

②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원내 벚나무는 1909년 개원식에 참석한 일본인 다수가 창경원을 ‘일본식 정원’의 양식으로 꾸밀 것을 제안하여 오사카로부터 왕벚나무를 들여온 것에 시원을 둔 식민지 상층 문화의 상징이다[7]. 따라서 한국전쟁 직후까지도 대부분의 공간에 식재되어 있던 벚나무는 방치되었고, 때마다 고사목을 제거하는 정도의 정비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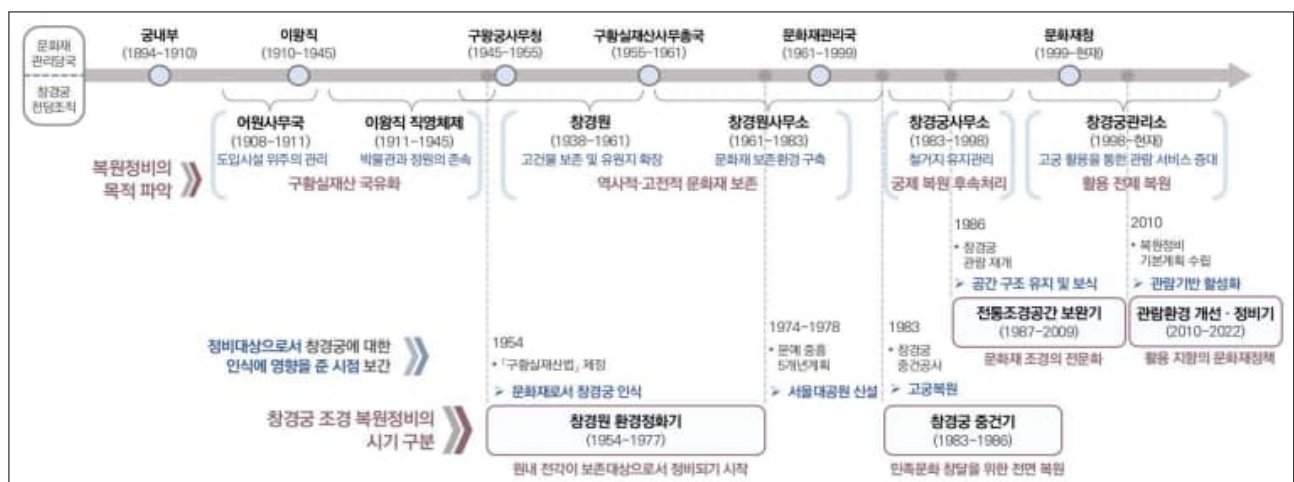


그림 3. 관리조직별 조경 정비 목적의 변화에 따른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시기 구분

1956년 명정문에서 춘당지로 향하는 남북간선로(앵화터널), 전각 밀집부, 영춘헌 북측에 있던 노령의 벚나무가 대대적으로 제거됨에 따라 2천여 주에 이르던 벚나무는 3백여 주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58년부터 그간 전쟁으로 중단하였던 밤벚꽃놀이를 재개하자 원내 환경정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외부공간 정비로는 봄 행사 기간에 급증하는 인원에 대비한 편의시설 가설공사와 야간경관을 위한 조명등 위주의 시설물 공사가 시행되었다. 다시 식재한 벚나무의 사이에 오색등을 달고, 춘당지부터 고건물 구분 없이 경내 곳곳에 ‘꽃단지’를 조성하며⁶⁾, 전광판, 소형 노천무대 등을 설치하였다(그림 4). 이러한 봄맞이에 주력하였던 운영방식은 1970년대 말에야 퇴폐 풍조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조명을 줄이고 수림 지역을 폐쇄하면서 변화되었다.



그림 4. 매년 시행된 봄맞이 대비 환경정비[35]

③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

1970년대 창경원의 운영목표는 ‘원내 문화재보호’와 ‘세입증대’로 설정하였지만, 창경원사무소의 실질적인 업무는 세입증대에 집중되었다[31]. 따라서 전각 보존정비는 여전히 주요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원활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에만 방점을 두는 등 이전 양상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1969년 11월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수용 동물과 시설이 대폭 늘어났는데, 이에 1950년대부터 제기되었던 각종 도시공해에 취약한 동물사의 입지와 수용시설 증축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1971년 10월 창경원은 ‘창경원 환경개선 계획(안)’을 마련하였다.⁷⁾ 이는 “동물사와 유기·휴게시설이 구시대적 형태로 난립”하며, “관람동선의 불합리” 및 “문화재보존지역 및 녹지지역의 환경 황폐화”와 같은 공간 구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31]. 따라서 남쪽의 동물원을 식물원 옆으로 옮기고, 기존 자리에는 현대식 유기(遊技)시설을 이설·확장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그림 5). 해당 계획에서는 문화재보존지역의 면적만 조정되지 않았는데(표 4), 이는 시설 이전의 목적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관람이나 시설관리의 편의를 추구한 것이었음을 시사한다⁸⁾. 당시 소극적으로만 행해진 문화재의 정비는 “문화

재 및 주위 정원수 보호와 관광객의 휴식처로서 이중 효과”를 도모하였을 뿐이었다[36].



그림 5. 문화재와 유원지 분리를 시도한 1970년대 계획[31]

표 4. 1970년대 ‘새창경원’ 토지이용 계획안[31]

구분	면적(평)	전체면적대비 비율		증감률(%)
		계획	기존	
동·식물원지역	23,002	36 (%)	27 (%)	▲ 9
유기장지역	13,283	20 (%)	3 (%)	▲17
문화재보존지역	11,600	19 (%)	19 (%)	-
녹지지역	15,965	25 (%)	56 (%)	▼31
합 계	63,859	100 (%)		

2) 창경궁 중건기(1983~1986)

①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1983년부터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동물원이 이관되었고, ‘창경궁 중건공사’라는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1984년에는 기존 유원지 시설 철거가 주를 이루었고, 이듬해 후원을 중심으로 한 조경공사와 고건물 일대의 복원이 진행되었다. 1986년 8월 창경원은 고궁으로 재개방되었다.

당시 경내 대부분의 공간은 기존 시설의 철거지였기에 외부공간의 정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창경원은 해방 이후로도 유원지로서 서울의 명소로 인식되었기에 복원될 창경궁의 기본방향에서도 휴식, 산책, 감상, 관람이 포함된 도시공원의 성격을 이어갔다(그림 6). 따라서 계속 제기되었던 고궁과 공원 사이의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문제는 복원 이후 “갈 곳

없는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궁궐지역과 공원지역의 구분이 뚜렷”한 사적공원 형태로 결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문화재와 녹지로 이분된 공간구조를 취하게 되었다[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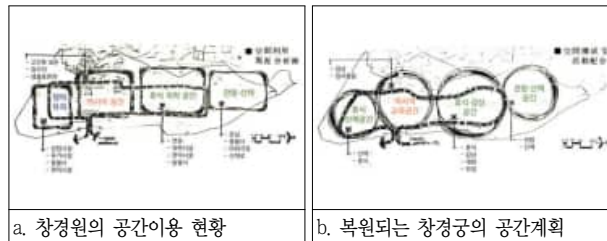


그림 6. 이용을 고려하여 유지한 창경궁의 공원적 성격[38]

②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본래 “시설물의 철거지는 창경궁 본래의 기능을 분석하여 그 기능에 부합되는 조경으로 처리”하는 방침이 설정되었는데 [39], 유구가 소실된 공간에서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는 경관을 모색하는 것이 당시 문화재 조경의 역할로 이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거지는 ‘유보녹지(留保綠地)’라는 완충녹지로서 잔디밭에 노거수만 일부 존치된 산책 공간으로 제공되었다. 이에 건물지 위치를 표시하는 처리가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명정문 남쪽 구역은 동물사의 지하부 건설로 인하여 이미 “원지반이 완전히 교란”되었고, 켄내각사와 동궁은 중요한 건물이 아닌 “회랑 주위의 부수 건물지로 보여지니” 안내문 표시 수준의 정비만 하도록 결정되었다[40]. 이로써 전각이 밀집한 권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이 공제와 무관한 녹지가 되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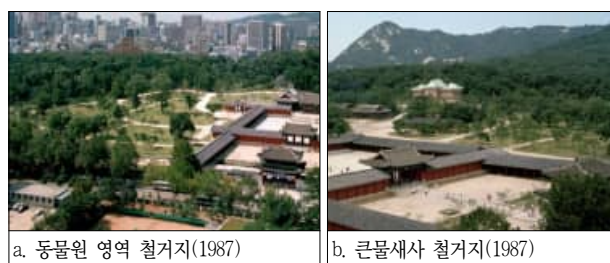


그림 7. 외전 양쪽에서 완충 기능을 수행하는 유보녹지[35]

③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홍화문부터 내전에 이르는 공간은 고건물이 밀집하여 ‘문화재보존지역’이라고 불렸다. 이곳은 “전통공간으로 보존되어야 할 곳”으로서 “외래수종은 전부 제거”하고 “전통 배식기법”에 따라 식재하는 정비방침이 수립되었다[38]. 이처럼 전통수종도 동선에 지장을 준다면 재배치되거나 제거되는 등 ‘전통성’이 강조된 공간이었으나, 당시 소나무만 예외적으로 존치되었고(그

림 8), 절토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내 다른 공간으로 이식하였다[41].



그림 8. 동선계획과 무관하게 존치된 전각 주변 소나무

춘당지는 명백하게 일제가 만든 공간이었으나 앞서 건축사적 의미를 두어 존치한 대운실의 영향을 받아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단,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닌 ‘전통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그림 9). 이에 따라 춘당지는 어느 시기에도 존재하지 않던 전통을 추구한 공간이 되었다.⁹⁾ 일본식 호안은 정원석 쌓기에서 자연석을 섞어 쌓는 형태가 되었고, 대·소춘당지 사이에는 석교가 놓였으며, “우리 고유의 연못”에는 대부분 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중도(中島)까지 만들어졌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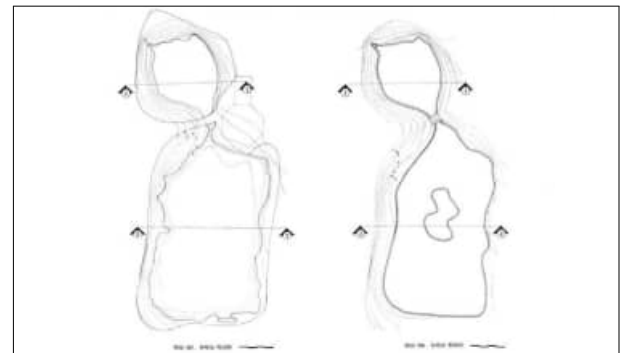


그림 9. 공사 이전 춘당지 현황도(좌)와 종합정비도(우)[42]

④ 산림지역 통합 정비

자경전 터 후면과 대운실 주변에는 후원과 연결되는 두 군데 산림이 있는데, 전자는 1928년 일제가 옮겨 온 성종의 태실이 있는 ‘태봉(泰封)산’으로 불리고, 기록상 장원봉(壯元峯)이라 불린 후자는 관덕정이 있어 ‘관덕(觀德)산’으로 지칭되었다. 두 명칭에 대한 정확한 연원은 알 수 없지만 1961년 신문기사에서 처음 확인되며¹⁰⁾, 이후 각각을 지칭하는 공사가 따로 발주된 사실에서 이들은 두 산림지역을 편의상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원공사에 앞서 1982년부터 두 공간은 하나의 ‘산림’으로서 통합적인 정비대상으로 인식되었는데, 창덕궁 후원과의 시각적

연계를 우선으로 자연림 경관을 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그림 10). 그러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경내 각종 복원정비 중 발생한 지장목들이 “지형의 변경이 없는 관덕산 쪽으로” 이식되었다[43]. 식재를 위한 성토가 따로 필요하지 않던 기존 산림이 적지로 여겨짐에 따라 후원에는 식생 경관이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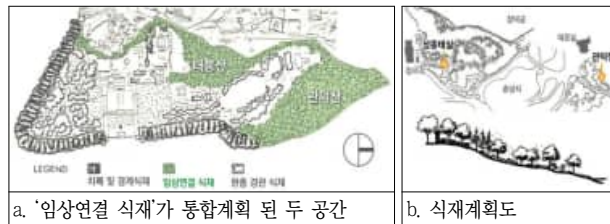


그림 10. 1984년 조경계획도에 표현된 산림 공간[38]

3)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

①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 조성

1983년의 공사는 제한된 공기로 인하여 원형 설정과 그에 따른 제거 및 존치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깊은 논의를 거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¹¹⁾. 따라서 당시 계획은 주로 3년간의 정비 내용만 다루고 있을 뿐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후 과업까지 제안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식생 관련 조경 공사가 가장 많이 시행되었는데, 공사명에서도 ‘보완’이 자주 등장하듯 전대 복원정비의 후속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된 권역은 후원으로, 관덕정과 성종태실(비), 춘당지, 초식동물사 등 이질적 층위가 혼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창덕궁과 ‘어울리는’ 자연림의 연출이라는 모호한 계획만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모호한 정비방침에 대한 해석은 또다시 ‘전통경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89년 이후 꾸준히 후원의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보식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은 ‘전통수림복구’라는 내용으로 송림 조성 공사가 시행되었다. 해당 공사는 수림 지역만이 아니라, 1980년대 복원 때 ‘미정비된 공간’까지도 대상으로 하였으며(그림 11), “점진적으로 궁궐의 전통조경공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44].

당시 권역마다 궁궐을 회복하기 위한 목표 경관은 명확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전통성을 보완한다는 명목에서 소나무 식재만 도입된 것이다(표 5).

표 5. 창경궁 내 조경 정비공사별 소나무 도입 사유

대상지	도입 사유	출처
동궁 권역	낙선재 주변 “일제강점기 이후 왜식 또는 무질서하게 변형되어 우리나라 전통정원의 모습 이라 할 수 없음”	창경궁 낙선재 조경정비 (DA0219448)
후원 권역	태봉산 “창경원 시절 야간 벚꽃놀이를 위해 식재한 빛나무를 제거하고 태실 앞 노송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	창경궁 장서각 철거지역 조경 정비계획 (CA0026000)
	관덕산 “관덕산 일부 지역이 복원공사 시 정비되지 않아 궁궐의 전통조경공간으로 회복 시키고자”	창경궁 조경정비 보완공사 (DA1168824)
궐내각사 권역	-	창경궁 내 조경정비공사 실시설계 (CB0006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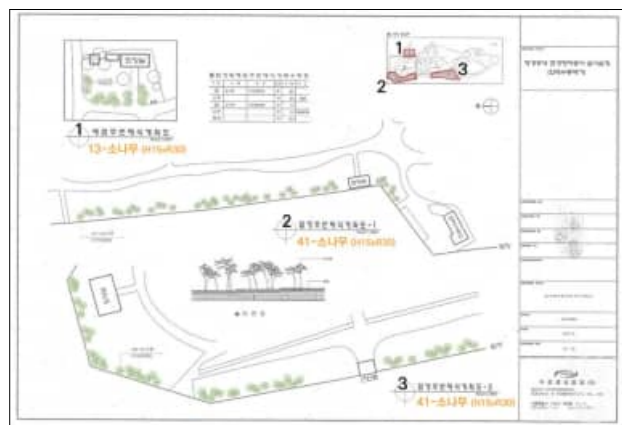


그림 11. 외래수종 제거 후 소나무로 대체된 미정비공간
출처 : 『창경궁 내 조경정비공사 실시설계(2001.12.)』, CB0006530.

②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 도입

전대에 상당 부분 복원된 내·외전에 대해서는 화계와 연지 등 전통조경구조물 정비가 본격화되었다. 과거 봄맞이 명소였던 창경원은 화계와 춘당지를 중심으로 개나리와 철쭉을 대량 밀식함으로써 이벤트성 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에 1990년 양화당 후면의 화계를 시작으로 1999년까지 통명전, 경춘전, 문정전 등 경내 모든 화계를 대상으로 한 보수와 수종 갱신 등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창경궁 복원정비 공사 당시에는 전통수종을 가능한 존치한 결과 느티나무, 조릿대, 대나무, 소나무가 한 공간에서 입면을 구성하는 경관이 연출되었다(그림 13a).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정비에서는 뿌리 노출로 인하여 화계 석축열이 붕괴될 위험이 있거나, 경관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전통수종이라도 제거하였고(그림 12), 다양한 수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그림 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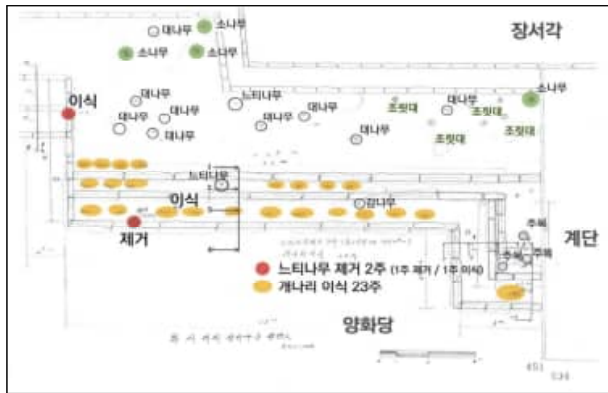


그림 12. 화계 해체 정비구간 평면도(1990)

출처 : 「창경궁 양화당 뒤 화계 정비공사(1990.3.1.)」, CA0025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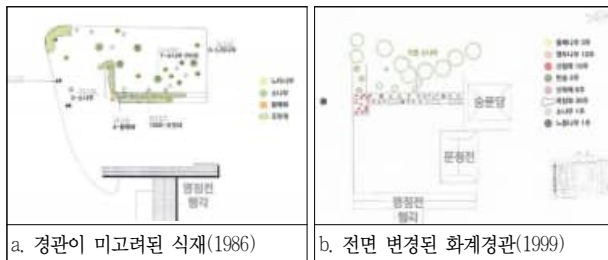


그림 13. 전통 식생경관이 고려된 문정전 화계 정비[42][45]

4)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

①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

2010년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은 1983년 사업 이후 내·외전 권역을 제외한 타 권역의 원형복원이 진척되지 못한 문제 의식으로부터 수립되었다. 따라서 미복원지역에 대한 후속 복원정비를 통하여 창경궁의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²⁾.

중심 전각들이 남아있는 내·외전 권역에 대해서는 두 권역이 구분되지 않은 현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주변 행각과 담장 등 외부공간 요소들의 복원을 통한 공간감 회복이 주로 다루어졌다(그림 14a). 한편, 건축물의 복원 방식에 있어서 궁제의 회복과 활용 가능성, 영역 경계 구분을 위한 역할을 고려하여 ‘전체 복원’과 ‘기단 및 초석 복원’으로 구분하였는데, 가장 큰 변화를 수반하는 ‘전체 복원’이 경내 내전 권역에 가장 높게 계획되었다.

과거 동물원이 있던 궐내각사와 동궁 권역은 본래의 지형과 건물지가 모두 멸실되었다는 이유로 전대에 복원되지 못한 유보녹지이다. 이는 2010년 계획에도 이어져 발굴조사를 거쳐 추후 논의하기로 보류되었고, 관전대와 자력루 등 시설물의 이설과 건물지 흔적만 표시하는 차원의 정비가 검토되었다.

후원 복원계획은 춘당대, 관풍각, 관덕정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 이는 과거 후원에서 이루어졌던 행위와 동선을 고려하여 ‘상림십경(上林十景)’의 관찰 중심점인 세 장소에 근거한 것이다[46]. 즉 「동궐도」 경관으로 복원하여 통합된 시계(視界)를 확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대춘당지를 매립하여 논[內農圃]을 조성하고, 소춘당지는 방지 형태의 백연담(白蓮潭)으로 호안을 변경하는 등 전면적인 조선 후기 경관의 복원이 계획되었다(그림 14b).



그림 14. 2010년 복원정비계획의 주요 대상 권역[46]

②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은 일제강점기 직전으로의 복원을 목표로 4단계의 연차별 계획(2012~2039)을 수립하였다. 2022년 현재는 2단계의 중반을 지나는 시점으로 계획대로라면 후원 권역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춘당지의 매립과 춘당대 및 내농포 복원은 물론, 1단계인 내전 권역조차 현황에 대한 보수가 주를 이루고 기본계획대로 이행된 사항은 없는 실정이다.

2010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2년간 수행된 조경 복원정비 공사 내용은 권역별 궁제의 회복과는 무관한 관람로와 인제책 등 관람환경 개선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경 보완공사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수종을 갱신했던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월대와 화계, 통명전 연지, 옥천교로 한정된 공사가 진행되었다. 즉, 현재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사업은 권역 단위로 정비가 진행되지 않고, 관람환경 개선 차원의 공사가 주를 이루면서 궐내 전통조경공간에 대한 인식까지 점차 왜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 해석

1) 고유성 : 권역별 조경 복원정비사업

① 소규모 단위 공간에 집중된 조경 정비대상

내·외전은 옥외 구조물에 관한 정비가 많았고, 후원은 춘당지와 산림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동궁과 궐내각사는 유보녹지가 된 이래 후속 정비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로는 관람로, 창덕궁과의 경계와 집춘문 인근 담장이 정비 대상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또한 궁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보수 위주의 공사였다. 즉, 1980년대 이후 경내 '전통 공간'은 기존 현황에서 더 확장되지 않았는데, 정비 대상이 점차 영역성과 무관한 선형공간으로 옮겨가는 양상은 전대에 설정한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원인이 된 것이다(그림 15a).

② 권역별 경관의 이질성 증대

복원정비사업의 결과로서 문화재 경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를 세부 공종별로 분석하였다. 분류체계는 과거 '정화사업'으로 발주된 내용까지 포함하도록 조경 고유의 업역을 분석 대상으로 망라하고자 김민선 외(2022)가 제시한 문화재 조경 수리의 6가지 세부 공종을 따랐다.

외전과 내전에서는 초기 훼손된 원지반 회복과 어구 복원을 위한 토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전통 구조물 및 시설물 공사와 명정전과 통명전 앞 박석포장 공사가 시행되었고, 조경수 성격의 기존 수목 제거가 병행되었다.

후원 권역은 초기에는 춘당지 준설과 주변 수계 복원 등 토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송림 조성 식재 위주로 정비되었다. 그 결과 후원은 해방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춘당지-온실-산림'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궁과 궐내각사는 유보녹지가 된 이래 변화가 없으며, 2000

년대 이후 대규모 소나무 보식을 거친 뒤로는 인제책과 포장면 보수 등 유지관리 차원의 정비만 이뤄졌다.

구조물 단위의 조경 복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외전과 비교하여, 미복원 녹지에 해당하는 남북측의 세 권역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기본계획과 달리, 소나무 위주의 단순한 녹지 경관으로 귀결되고 있다(그림 15b).

2) 시대성 : 복원기준연대 설정 논리

① '중건(重建)' 결정으로 타당성 논의 생략

제5공화국 하에서 문화재보호는 다가올 국제행사에 대비하는 문화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하였고, 창경궁은 이를 대표하는 궁궐 정비의 첫 사례였다. 이때 첫 기본계획 아래 실행된 3년간의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중건(重建)'과 '중창(重創)'이라는 용어가 자주 혼용되는데, 이는 당시 고궁 복원에 대한 태도를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제5공화국의 민족문화 창달과 전통문화의 재현이라는 지표 아래 문화재관리국은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민교육의 도장조성과 '86 아시안게임'·'88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전통문화 단장 사업으로 먼저 창경궁을 증건하게 된 것이다."

문화재관리국(1989), 창경궁 증건보고서.

사전적 의미로서 두 용어는 주로 황폐하거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쳐 짓는다'는 유의어이다. 현대에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의미적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공통적으로 "건조물의 퇴락 혹은 옛터를 기반으로"하는 공사로, 이들은 '복구(復舊)'의 목적성을 띠는 개념이다[47]. 복구는 소실된 기능만을 회복하는 행위로서 '창건 당시 건물'과의 관계에 있어 당시의 양식을 고증하여 따라 지은 '복원(復元)'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증건된 건물은 기능의 연속성만 가질 뿐 물질적 대상으로서 "새로운 최초의 모습"과도 같다[12].

1984년 7월 복원정비공사가 진행 중인 대책회의에서 당시 문화재 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장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 공사에서 복원이라는 말이 부적합하다. 이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어느 시대에 맞추어 복원하느냐 또한 그 시대로 맞추어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 공사의 성질로 보아 중창으로 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창경궁 정비공사 추진대책회의 결과보고」,
(1984.7.27.), BA0122773.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당시 회의에서는 철거한 표본관 건물 지대석이 지상으로 노출된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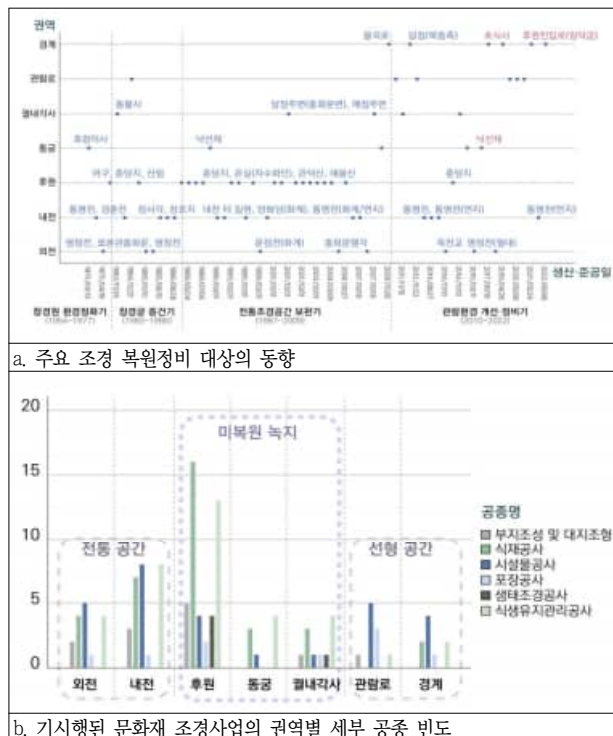


그림 15. 창경궁의 권역별 조경 복원정비사업 양상

한 안전이 다루어졌다. 이에 처음에는 ‘잔디를 심어 조정 처리’하여 기초부를 노출 전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고증을 통한 전면 발굴과 복원은 당시 여건상 무리가 있어 ‘중창’ 의견이 개진되었다. 같은 회의록에서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은 원지반을 찾기 위한 절토 후 조정 처리를 하는 원칙론도 타당하지만, “현 창경궁은 많은 변형이 있었고 발굴부터 다시 하게 된 공사”임을 이유로 “1986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동궐도를 참고하되, 이미 유구나 지형이 상당히 훼손되었으므로 “어느 시대에 맞추어 복원”하기보다는 현시점에 맞게끔 새로 짓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공사를 속히 진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창경궁의 다양한 역사적 층위의 가치를 고민하여 복원하는 원상(原狀)의 회복이 아니라 복구(復舊)의 개념인 중건을 표방하면서 창경궁의 첫 복원정비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 경관은 ‘막연한’ 형태가 되었다.¹³⁾ 즉 유산에 개입하기 전 마땅히 거쳐야 했을 복원 기준연대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층위를 존중하는 ‘시대성’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고, 당시 복원에는 ‘왜색의 제거’와 ‘민족문화 창달’만이 적용되었다.

② ‘복원(復元)’ 대상에서 배제된 창경원의 경관

2010년 기본계획에서는 고증에 충실한 복원과 ‘활용 가능한 이야기가 있는 전각을 우선순위’로 복원하는 두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46].

“『동궐도형』에 그려진 모든 건물을 관성적으로 채워 짓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복원계획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무리 철저한 고증을 거친 복원이라 해도 결국 우리 손으로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만든 창경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호흡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전각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문화재청, 2010,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46].

이에 1980년대와 달리, 2010년 계획에서는 복원정비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600년 층위에 있어서 창건, 중건, 창경원 격하 등 큰 전환점을 기준으로 각 시기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하여 훼손되기 직전인 ‘1908년 이전’을 기준연대로 삼고 내전만 순조 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즉, 현존하는 전각 대부분이 순조 연간의 건물임을 이유로 내전과 그 주변은 ‘『동궐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순조대 영건의궐 등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고종년간의 도형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복원”한다는 복합적 연대설정 기준이 마련되었다[46].

이러한 기준연대 설정은 해방 이후 시민 자발적인 재건의 움

직임도 있었던 창경원의 경관을 해방 전후의 구분 없이 ‘일제에 의한 훼손’으로 규정짓고, 그 이전만을 원형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원형 인식의 폐쇄적 태도는 당시 기본계획의 방향성이 문화재의 현대적 가치를 강조했던 점에 미루어 보아 모순을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로써 2004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온실은 현재까지도 존치되고 있으나, 창경원의 시대성은 현대인의 향유를 전제로 기획된 복원계획에서도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3) 완전성 : 후원 권역 원상의 보존 실태

① 대온실 존치에 부여된 정당성

창경궁 복원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경전 터에 세워진 장서각과 승문당 옆의 표본관 철거에는 이견이 없었다. 왜색이 거론되는 공간 중에서는 대온실과 벚나무의 존폐에 대해서만 논쟁이 일어났다.¹⁴⁾ 당시 기사에서 대온실 일대를 두고 논의되었던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다.

“... 장서각을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주로 이전 복원에 따른 정비와 기술적인 난점 때문이다. ... 문화재 당국은 이 건물이 한국 최초의 박물관 건물이어서 헐어버리기도 아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창경궁복원공사가 완공단계이며, 전체적으로 고궁분위기를 되찾은 시점에서 건축양식이 동떨어진 장서각의 존재는 큰 흠으로 지적된다.”

『복원된 창경궁의 日帝잔재 “장서각 만 곳 옮겨라”』,
『조선일보』, (1986.7.18.)

당시 관리당국은 이왕가박물관에서 시작하여 1938년 이후 도서관이 된 장서각을 ‘궁중유물 전시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최초의 식물원으로서 자생종을 위한 ‘한국식 물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대온실 존치 논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존폐 결과를 달리한 둘의 차이점을 통해 당시 대온실이 얻은 정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양식적 측면에서 전자는 일본을, 후자는 프랑스식 건물이었으며, 둘째로 위치에 있어서 후원의 식물원은 궁궐 전각들과 상대적으로 이격되어 있었으나, 장서각은 자경전 터에서 그들을 위압하는 위치였기에 ‘고궁 분위기를 되찾은 시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1985년 문화재관리국이 “우리 주권이 있을 때 세워졌고 최초의 식물원이니 보존하자”는 견해를 제시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8]. 즉 철거가 예정된 표본관, 장서각과 다른 대온실의 존치 사유는 강제병합 이전에 만들어진다는 것에서 논리를 취한 것이다. 이는 당시 창경원 대온실 일대를 하나의 시제로서 인정한 시도로 해석된다.

왜색 제거 작업을 전제로 다시 지은 창경궁은 타 궁궐에 비하여 ‘지워진’ 면적이 더욱 넓으나, 현재까지 문화재 보존의 핵

심 가치인 진정성 있는 원상 회복은 1980년대 공사 이후 답보 상태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창경원의 식물원 본관이었던 대온실은 '전통화를 거쳐서라도 존치시킨 식물원'으로서 지금에 오기까지 여러 차원의 논의를 거쳐 창경궁 내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 대온실과 춘당지가 장소로 인지되는 현시점에서 기존 복원정비 방향에서의 계락을 벗어나,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시제(時制)로서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는지 논하는 것은 문화재 경관으로서 창경궁 정비에 있어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② 대온실 일원의 영역성 고찰

대온실과 전면 화단은 "정형식 정원의 교육자료가 됨"을 이유로 존치되었고, 이에 따라 춘당지도 호안만 다시 쌓는 방향으로 존치되었다[49]. 그러나 '정원'으로서 갖는 완결성이 존치를 결정한 핵심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대온실 앞 정형식 화단은 마치 온실과 분리된 공간처럼 보존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1911년 영친왕이 창경원을 방문한 사진 자료를 통하여 화단의 개원 직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온실과 함께 프랑스식

화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a). 현재와 비교하면 초장이 상당히 낮았으며, 중앙계단 양옆의 녹지는 잔디로만 처리되었다. 이후 1915년 이왕직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에서 화단의 구체적인 평면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수 양식으로 구획하고 내부에는 화훼로 장식함으로써 서양 정원의 요소가 다수 섞여 있던 모습이 확인된다(그림 17b). 이후 계단의 양 사면에 둥근향나무가 열식되고, 입구에는 원추형 침엽수가 대식되었다(그림 17c). 1920년대 중반 이후 문양 내부에 식재된 초본이 사라졌으며, 경계부에 구획된 회양목도 높아졌다(그림 17d, 17e)¹⁵⁾.

해방 이후 화단에는 화훼류를 심지 않고 현재의 높이까지 회양목이 올라와 미로정원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그림 17f). 1984년 기준에 대식되었던 침엽수는 반송으로 대체되고, 화단의 내부 문양은 전정으로 단순화되었다(그림 17h). 이후 2019년 일제가 야간상시 개방의 거점이 되면서부터는 내부에 경관조명등까지 설치되었다. 이처럼 온실 전면의 화단은 주요 경관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정비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함에 따라 시기마다 관리 주체의 임의대로 변형되었다(그림 18).

한편, 일제는 소춘당지에는 대온실, 대춘당지에는 일본식 건



그림 16. 시기마다 변형되었던 대온실 전면 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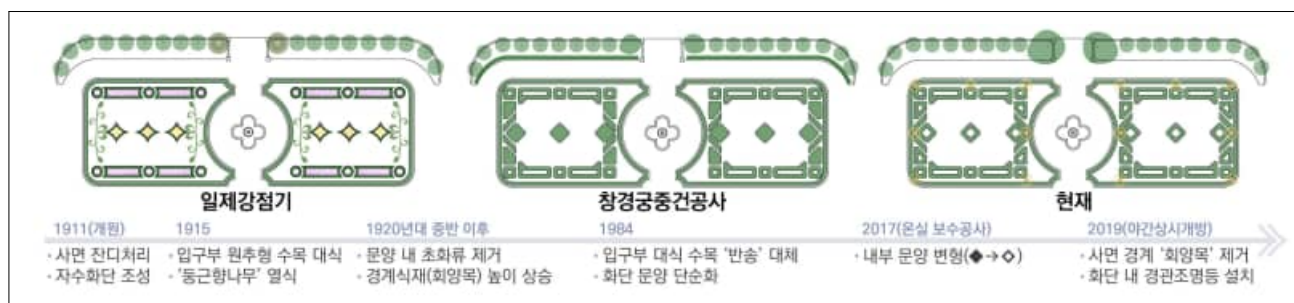


그림 17. 대온실 전면 화단의 변천 과정

물인 수정(水亭)을 지어 일대를 하나의 영역으로 조성하였다. 이러한 온실의 화단 앞에는 소춘당지 호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휴게공간이 있었는데(그림 19a), 이는 각종 꽃나무가 식재된 2단의 구조로서 창경원의 봄을 대표하는 정원 경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왜색의 제거에서 시작된 공사로 호안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온실이 차폐되어 연계성이 상실되었다(그림 19b). 이후 대온실 영역이 건축물 단위로 인식되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대춘당지와 달리, 소춘당지는 방치된 채 후원 속 경관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 한때 반송을 대체하고 소춘당지를 정비하는 등 원경관 회복을 위한 조경 정비가 시도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그림 20).



그림 18. 현재는 사라진 소춘당지 호안의 정원[5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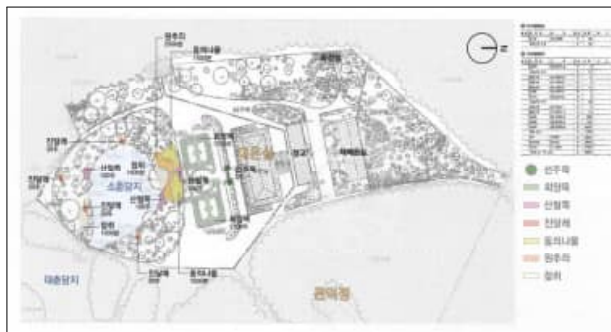


그림 19. 미시행된 온실 일대의 조경 정비계획

출처 : 『창경궁 온실 주변 조경 정비사업(2003.12.1.)』, CB0006751

4) 효용성 : 공간 활용 실태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창경궁관리소 주관의 경내 공간을 활용한 행사 51건을 권역별, 장소별, 내용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표 6).

타 권역과 달리 외전과 내전 권역은 세부 전각들을 모두 활용하였다. 하지만 내전과 외전의 장소 차별성이 없었는데, 정치와 생활 등 실내 프로그램의 주제는 구분되는 것을 통하여 주최 측 입장을 고려하면, 두 권역이 외부공간에서도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후원 권역 내 대온실과 춘당지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는 활용 방식은 창경궁의 장소성 확립에서 중요한 점을 시

사한다. 즉, 근대 온실을 가진 궁궐로서 '독창성'과 복원 이후 현상(現狀)에서 전통성을 갖추었으면서도, 그 시원(始原)이 변형을 전제로 한 창경원에 있다는 일대의 특성은 창경궁이 활용 측면에서 타 궁궐보다 제약이 덜한 강점을 부여해주고 있다.

궐내각사와 동궁 권역은 기본계획부터 '산책'의 기능만 부여된 곳으로, 현재 두 권역 간 구분은 식별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해 수목 해설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존 수목들은 완충 목적으로 창경원의 대교목과 소관목만 일부 남긴 것이며, 그 또한 소나무 위주로 보식되었다는 점에서 다양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어구를 따라 난 '금천길'과 '영춘헌 동측 숲'을 대상으로 한 활용은 '숲길'로서만 공간을 이해하는 등, 궁궐 정체성과는 무관한 생태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6. 창경궁 권역별 주요 활용 프로그램(2007~2022)

권역명	공간명	활용 프로그램	주요 특성
외전	홍화문	수문장 교대식식 재현	
	옥천교	숲 해설	
	문정전	야연 체험	
	명정전	단청 그리기 체험, 뮤지컬	
내전	영춘헌	예절 교육, 궁중문화 체험	역사 교육, 공연, 궁중문화 체험
	집복헌	궁중문화 관련 도서 열람	
	경춘전	강좌, 과학 교육, 공연	
	환경전	전시회, 생태교육 및 공예, 공연	
	함인정	국악 공연	
	통명전	궁중문화 체험, 무용 공연, 국악 공연, 인문학 강좌, 야연 체험, 가례 재현	현대적 활용
	풍기대	과학 교육, 보름달 포토존 설치	
후원	대온실	자생식물 전시회 배양, 강의, 봄꽃 관람, 별자리 관측	전통식물 관련 교육 및 체험
	자생식물 학습장	자생식물 전시회	
	춘당지	산림치유, 단풍 숲 걷기, 사진 콘서트, 숲 해설	산림체험, 수목 해설, 공연, 현대적 활용
궐내각사	-	봄꽃 관람, 숲 해설, 과학 교육(관전대)	수목 해설
동궁	-	숲 해설	
기타	어구 (금천길)	통수식, '왕가의 산책' 재현, 봄꽃 관람, 수생식물 관람, 산림치유, 단풍 숲 걷기	산림체험
	영춘헌 동측 숲	숲 해설, 고궁 음악회, 무용 공연	수목 해설, 공연

IV. 결론

본 연구는 기시행된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의 시기별 특성을 도출하고, 문화재 보존원칙에 의거하여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실재산으로 분류된 창경궁은 전담조직이 바뀔 때마다 조경 정비의 목적이 변화하였다. 조선왕가의 재산을 국유화하려는 일제에 의해 조성된 창경원은 환경미화를 위한 정원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해방 이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사적 지정으로 창경궁이 문화재로 인식되면서 고전물과 정원수목의 관리가 분리되었다. 1980년대 복원정비공사 이후 조경관리는 궁제 복원에 따라 발생한 철거지에 대한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1999년 문화재청으로 승격되고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경내 공간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모색되고 궁궐 조경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시작되었다.

둘째, 창경궁을 문화재 경관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1954년부터 현재까지의 문화재 조경 정비 양상을 고찰하였다. '창경원 환경정화기'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와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유보녹지 설정, 춘당지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로 특징지어진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에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 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다. '관람환경 개선·정비기'는 활용을 전제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 양상을 보인다.

셋째, 문화재 보존원칙으로서 '고유성'은 권역별 조경 복원정비사업을 고찰하여 소규모 단위 공간에 집중된 조경 정비 대상, 권역별 경관의 이질성 증대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시대성'을 통하여 복원기준연대 설정 논리 측면에서 '중건' 결정으로 타당성 논의가 생략되고 창경원의 경관이 '복원' 대상에서 배제된 문제를 해석하였다. '완전성'은 후원 권역 원상의 보존 실태와 관련하여 대온실 존치에 부여된 정당성과 일대의 영역성 고찰로 문제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효용성'을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하여 동궐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내·외전과 다른 프로그램들이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에 내재된 담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해석함으로써 40여 년간 복원이 담보된 실태를 파악하고, 미복원지와 전각 밀집 구역 간 경관의 이질화를 야기하는 현 정비 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동안 복원기준연대 설정에서 배제되었던 대온실 일원에 대하여 해방 이후 시민의 유원지로서 창경원이 갖는 시대적 기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조경 정비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한정된 문헌 정보와 현장에서 진행

된 사업 중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례에 국한하여 조경 정비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오랜 기간 중단된 진정성 회복을 위한 논리적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출한 성과가 향후 수립될 종합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창경궁의 다층위적인 원상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주 1) 정수진(2021)은 국내 문화재 제도 내 '전통'은 정의도 없이 그 자체로 문화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며, 이들은 문화의 순수성을 논할 시 일제의 개입(1910)을 기준으로 대부분 "그 이전의 것"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게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10].
- 주 2) 신회권(2018)은 UNESCO 분류에 따라 건축물(Architecture)과 건조물(Building)을 통칭하여 '건축문화재'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단순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인 건조물과 달리, 건조물은 "예술적 가치의 보존과 밀접히 연계되어"있으므로 "유기적 전체"로서 '완전성' 개념의 고려 대상으로 설명하였다[13].
- 주 3) 고종과 순종의 서거 이후 근시와 그들의 주거공간인 궁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1920년대 들어 축소개편은 본격화하였다.
- 주 4) 전세가 불리해진 일제는 맹수사를 제외한 원내 모든 청동제 인지책을 목재로 대체하면서, 벤치, 안내판, 사료 그릇까지 포함한 대부분의 금속제 시설을 철거 무기생산을 위하여 공출하였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못했는데, 기술직이었던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사육사, 원예사와 일용직 인부들만이 남아 후원과 종묘에서 먹이를 구해 동물들을 돌봤다[31].
- 주 5) 창경원에는 동계선수권대회, 예술농악대전, 씨름, 권투 등 주제의식 없이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나친 영리적 운영은 꾸준히 비난받았는데, "해방 후 일제의 흥행장으로 되다시피 오히려 왜정 때보다 더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였다[32].
- 주 6) 조선일보 "새단장에 부푼 창경원 봄맞이(1971.03.10.)"를 통하여 봄맞이 공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춘당지에 철쭉 150주, 관덕·태봉산에 찌리역새 각 500주, 옥천교에 개나리 155주, 물개사 뒤 진달래 150주를 심어 '개나리, 철쭉, 진달래 단지'를 만들고, 웅신도장, 케이블매설 벤치 등 시설물공사가 행해졌다.
- 주 7) 초기에는 동물원을 이전하여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러한 대상으로 상위당국의 소관인 경기도의 온릉(溫陵)이 낙점되어 1973년에 바로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는 1972년 말 유신 정국 속에 추진력을 잃어 중단되었다[31].
- 주 8) 문화재 구역에 대한 정화내용은 "중앙의 전각 밀집지역은 일체의 기타시설을 하지 않고 순수 하에 정화하여 영구 보존한다"는 서술에서 알 수 있듯[31], 당시 명정전 인근의 화단을 잔디로 바꾸고, 고목 앞에 '의자형 화단'으로 조성하는 등 문화재보호보다는 유원지 내 환경개선 차원에서의 정비만 이루어졌다.
- 주 9) '창경궁 중창공사 설계서 검토의뢰 보고서(BA0122790)'를 통하여 당시 실무진이 춘당지의 재조성을 위하여 창덕궁 반도지 보수정화공사(1976), 안압지 복원·정화공사(1980), 천안 독립기념관(1986) 신축공사 등 동시기의 현장들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춘당지는 호안 양식, 배수 방식, 구조 비교의 논리가 모두 다른 시대에서 획득되는 양상을 보인다.
- 주 10) "창경원에 케이블·카아, 300M, 춘당지↔태봉산↔마장, 우리나라 처음, 이달 말엔 등장", 소년한국일보(1961.09.07.).
- 주 11) 1984년 11월 발굴조사 당시, 동궐도만으로 기단 위치를 찾는 것은 무리가 있어 전면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문화재관리국장은 "복원에 완벽을 기해야 하지만 공기 면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였다[40].

- 주 12) 문화재청(2010).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주 13) 「제3차 창경궁 정비공사 추진대책회의 결과보고(BA0122773)」에 의하면, 1984년 9월 시설 철거 이후의 정비 방향 수립을 위해서라도 ‘정비 기본지표’는 반드시 설정해야만 했고, 다시 복원정비의 기준시기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당시 문화재관리국장은 “그동안 논의된 바로 이조말 일제에 의해 변형되기 전 시대”가 타당하다며 절토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원지반만 우선 정했는데, 이후 이것이 고스란히 복원정비의 기준시대로 적용되었다.
- 주 14) 문화재관리국은 당시 조경 예산 문제와 더불어 산림지역에 위치한 벚나무의 경우 자연림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존치하려 하였고, 이에 여론은 복원 ‘취지’를 위해서라도 없애야 한다는 측과 “시민의 오랜 명소 일부는 남겨야”한다는 입장이 맞섰는데, 당시 이미 수십 년간 벚꽃놀이 명소였기에 “일제에 대한 국민감정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창경원 벚꽃 남겨두나 없애나”, 동아일보(1986.04.21.)).
- 주 15) (그림 17c,d,e)는 연대 추정이 명확히 된 바 없기에 1910년에서 1917년 사이의 사진을 모은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을 참고하였다. 춘당지와 화단의 분수를 찍은 사진들에는 동근향나무가 열식된 사진과 잔디로만 처리된 그 이전의 사진이 모두 등장한다. 그러나 「창경원안내기」를 통하여 1915년부터 열식제가 있었음을 확인하여 상한 연대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대식된 두 침엽수가 성장한 시점의 (그림 17d)는 조선산림회가 발행하였던 『半島の翠綠(1926)』에도 없는 온실 뒤 ‘흰색 굴뚝’이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연대를 추정하였다. 이후 동일하게 굴뚝이 보이는 (그림 17e) 역시 후면에는 ‘(쇼와)6.11.26.’으로 소인(消印)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1931년으로 하한 연대를 추정하였다.
- [13] 신희권(2018). 문화유산학 개론. 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 [14] 이수정(2016).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원형개념의 유입과 원형유지원칙의 성립, 그리고 발달과정. 문화재. 49(1): 100-119.
- [15] 이원호(2016). 자연문화재에 있어 원형개념 적용의 문제점. 문화재. 49(1): 166-177.
- [16] 김미진, 소현수(2021). 정비사업을 통해 본 부여 정림사지 문화재 조경의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9(4): 38-49.
- [17] 김민선, 이재용, 김충식(2022). 문화재 수리의 조경분야 공중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40(2): 59-66.
- [18] 신희권(2020). 한양도성 복원 현황과 개선 방향-진정성과 완전성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80(-): 73-111.
- [19] 문화재청(2021).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연구. 대전: 문화재청.
- [20] “삼원설시”. 대한매일신보(1908.02.12.).
- [21] 문화재청(2012). 문화재청 50년사(본사편). 대전: 문화재청.
- [22] 구황실재산법. 법률 제339호.
- [23] 문화재관리국직제. 대통령령 제1844호.
- [24] 문화재관리국직제. 대통령령 제11297호.
- [25] 문화재관리국(1993). 고궁 관리개선에 관한 연구 - 창경궁을 중심으로. 서울: 문화재관리국.
- [26]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23호.
- [27] 동식물관리규정. 문화재관리국 예규 제7호.
- [28] 조경관리규정. 문화재훈령 제347호.
- [29] 궁·능 조경관리 규정. 궁능유적본부훈령 제11호.
- [30]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궁능유적본부훈령 제1호.
- [31] 오창영 편(1993). 한국 동물원 팔십년사 : 창경원편(1907~1983). 서울: 서울특별시.
- [32] “창경원호행”. 조선일보(1947.04.20.).
- [33] “창경원식물원 수리공사 착수”. 경향신문(1947.09.25.).
- [34] “옛 모습 다시 찾을 창경원, 춘당지·온실 등을 보수”. 조선일보(1954.05.24.).
- [35] 국가기록원(<https://archives.go.kr>).
- [36] 창경원 정화공사 설계변경(2차)(1973.04.19.). DA0130062.
- [37] 창경원 정비 복원 현장 검토 보고(1983.09.29.). BA0122756.
- [38] 문화재관리국(1984). 창경궁 정비 계획(조경). 서울:문화재관리국.
- [39] 창경궁 정비(조경)사업 설계용역(1983.11.25.). BA0122797.
- [40] 제5차 창경궁 및 종로 정비공사 추진대책회의 결과보고(1984.11.30.). BA0122773.
- [41] 창경원 정비 복원 현장 검토 보고(1983.9.29.). BA0122756.
- [42] 문화재관리국(1989). 창경궁 증진보고서(도판). 서울: 문화재관리국.
- [43] 창경궁 복원정비공사 문제점 및 대책(1984.07.27.). BA0122773.
- [44] 창경궁 조경정비 보완공사(2002.10.). DA1168824.
- [45] 창경궁 문정전 화계 조경 계획도(1999.03.01.). CB0006227.
- [46] 문화재청(2010).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대전: 문화재청.
- [47] 권준형(2011). 조선시대 건조물 수리공사 관련 용어 및 용례에 관한 연구-‘重’字, ‘改’字가 사용된 용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8] “창경원 식물원에 우리 자생종만 전시키로”. 조선일보(1985.03.31.).
- [49] 창경원 정비 복원 현장 검토 보고(1983.09.29.). BA0122756.
- [50]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2006).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서울: 창덕궁관리소.

REFERENCES

- [1]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사적지조경 실태와 과제 I -궁궐 식재 정비 방안 연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 [2] 이만희(2010). 창경궁 내전권역 공간구성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조재모(2022). 창경궁 빈양문 일곽의 구성과 의례동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8(3): 179-188.
- [4] 최종희, 정중수, 이원호, 백종철(2006). 창경궁 통명전, 관덕정 일원의 식생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3): 107-117.
- [5] 백종철(2018). 문헌 분석을 통한 창경궁 식생보전방향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6(1): 11-19.
- [6] 정우진(2015). 조선시대 궁궐 후원의 체제와 운용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7] 김현숙(2008). 창경원 밤 벚꽃놀이와 야행.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9(-): 139-162.
- [8] 김정은(2017). 유원지의 수용과 공간문화적 변화 과정 - 창경원, 월미도, 독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하시모토 세리(2016). 한국 근대공원의 형성 - 공공성의 관점에서 본 식민과 탈식민의 맥락.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정수진(2021). 문화유산의 근대와 탈근대. 서울: 민속원.
- [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71호.
- [12] 강현(2016). 건축문화재의 원형 개념과 보존의 관계-한국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 역사의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문화재. 49(1): 120-145.

원 고 접 수 일: 2022년 11월 2일
 심 사 일: 2022년 11월 28일 (1차)
 : 2022년 12월 12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22년 12월 12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